

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④ 곡성

9 전남도 생물방제센터

생물농약·친환경 농자재... 녹색산업 허브 육성



곡성 '생물방제 센터' 입주업체인 한국유용곤충연구소 박영규(사진 앞)·강승호 박사가 시험생산실에서 천적곤충인 '온실가루이좀벌'의 성장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천적곤충은 화학적 살충제를 대신해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찾아가 곡성군 입면 (재)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방제센터' 내 시험생산실.

지난 5월 센터에 입주한 (주)한국 유용곤충연구소(KBIL) 박영규·강승호 박사가 허리높이의 식물 담배가 한쪽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연구실에서 천적을 키워내는 손놀림이 분주하다.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사에 피해를 끼치는 외래해충인 '온실가루이'를 화학농약이 아니라 먹이사슬 관계의 천적곤충인 '온실가루이좀벌'을 이용해 없앨 수 있다는 강 박사의 설명이다.

다른 연구실에서는 보리를 먹이로 삼는 '보리두갈래진딧물'을 이용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과수에 해를 끼치는 '복숭아혹진딧물'과 '목화진딧물'을 없애는 '콜레마니진딧물'을 키우고 있다. 연구원들은 15배 배율의 루베(확대경)를 이용해 보리나 강남콩, 담배잎 뒷면에 붙어있는 눈에 띌 듯 말듯한 크기의 진딧물을 잡아먹는 '질레이리움' 등 천적곤충의 성장상태를 관찰한다.

이와 함께 전남 영광·진도·신안 등 서남해안 지역의 해송(海松)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솔검질각지벌레'의 천적을 선별하기 위한 연구도 한창 진행중이다.

19세기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화학 농약·비료는 '혁명적인' 농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반면 내성을 가진 병해충의 급증과 토양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화학농자재(비료·농약) 대신 천적과 생물농약,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생물방제 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최초 산·학·연 친환경 농자재 산업클러스터 = 곡성군 입면 창정리 옛 창립초등학교에 자리한 (재)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방제 실용화센터'(분원장 오병준)가 전남 녹색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교육·사업화 동시에

천적 생산 등 8개 업체 입주

지난 2006년 지식경제부와 전남도는 '친환경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 장성에 나노생소재 실용화 사업을 하는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소장 이재의)를, 곡성에 분원인 '생물방제센터'를 각각 설치했다.

2천205㎡(668평) 규모의 리모델링한 교사에는 연구개발실(시험분석센터)을 비롯해 벤처·창업보육실, 교육훈련실, 행정지원실, 시험생산실, 전남대 농생명분야 현지실험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생물방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한곳에 모인 전국 최초의 농자재 전문산업 클러스터로 관련 연구, 기술개발, 사업화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센터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종자유종·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와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구축을 비롯해 지역내 생물산업 관련 중소기업 인력양성,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센터를 중심으로 시험생산단지과 함께 150ha 규모의 친환경 재배단지, 산업 폐열을 이용한 농생명단지 등을 구축, 친환경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부지조성이 끝난 시험생산단지 부지 6만4천 555㎡에는 올 하반기부터 가주식물과 천적 생산동, 생물농약·친환경 농자재 생산을 하는 시험 생산동, 종자유종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 5월 개소이후 국내 굴지의 농약, 비료, 종묘 생산업체인 (주)동부하이텍을 비롯해 원예 해충

천적을 생산하는 (주)한국 유용곤충연구소, 꽃가루 수정벌 업체인 (주)대산, LED 이용 해충 포획기를 만드는 다목 등 8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 농업 1번지' 전남= 지난해 전남도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만1천256ha로 전남 전체 경지면적(31만1천81ha)의 32.5%, 전국 경지면적(1천75만8천 795ha)의 9.9%,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17만4천101ha)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역시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지난해 2조3천억원에서 2015년 7조2천억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는 지난 1997년부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해오다 2002년 이후 민간 기관에서도 맡아 왔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전체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타 도에 의뢰하며 7~10일을 기다려야 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센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사업비(100~200억원)를 확보해 '친환경 농자재 분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생물방제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농생명 산업단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함은 물론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핵심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위상을 높여 전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큰 기여를 하고 일자리 마련 등 유·무형의 각종 부가 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오병준(45) 생물방제센터 분원장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충방제 천적 생산 등 관련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기업유치, 친환경 농자재 생산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진딧물을 공격하는 '콜레마니 진딧물'.



총채벌레 천적인 '미끌애꽃노린재'.



진딧물 천적인 '진딧물파리'.

최강교육의 명문

김재규정철학원의
총력 성과는
계속됩니다!

김재규 대표

광주김재규정철학원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8월 10일

계좌제 1인당 300만원 지원!

동양 IT 직업전문학교

원어민 1:1 영어외와

영어외와, 꼭 해야 합니다

20년 교육부 협력 TCEFL 합격자 교육생을 위해
중주유니버시티드 외국인 영어를 위해
매주 대형 EXPO 외국인 관광객 영어를 위해

078-7433-0594

중은위치(약원기공역)

임대

2층 110평, 3층 110평, 6층 80평

중앙 B/D

222-4560